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년 내내 불러도 좋아

컬처 & 피플

성악가 김동규

작곡가 부친 성악가 모친 바리톤 성대 가지고 태어나 너무 당연한 음악가의 삶

가을은 '콧수염 성악가' 김동규(48)의 계절이다. 그의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그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악가의 대열에 올려서게 했고, 가을이면 음악회 초대 가수 '0순위'로 어느 아이돌 가수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지금도 아니면 늦어버릴 것 같은 '가을 남자' 김동규씨를 만난 곳 역시 가을음악회 현장이었다. 지난 9월말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린 '당신을 위한 노래' 음악회, 그리고 전주에서 열린 '참 좋은 음악회'에서였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콧수염과 호탕한 웃음 소리는 변함이 없었으며, 그의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도 들을 수 있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 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가을이면 꼭 들어줘야 할 것 같은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너무나 귀에 익어 질릴법도 하지만 언제 들어도 기분을 좋게 한다. 이 노래가 사실은 봄 노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노르웨이의 뉴에이지그룹 '시크릿가든'이 만든 곡의 원 제목은 'Serenade To Spring(봄의 소아곡)'이다.

"쓸쓸한 가사가 많은 가을 노래 대신, 밝고 예쁜 가을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는 그는 작사가 한정애씨와 함께 가사말을 만들고 편곡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탄생한 이 노래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악가로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평화스럽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행복이라는 건 의외로 소박한 거예요. '휴일 아침에 너 뭐하니?' 가볍게 물어보면서 일상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린 노래예요. 수



없이 부르는 노래지만 부를 때마다 새롭고 행복합니다."

바리톤 성악가 김동규의 인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듯하다. 작곡가인 부친과 성악가인 모친을 둔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진짜 대중 위한 음악 하고파 이탈리아 활동하다 귀국 모두가 좋아하는 '가을 남자'

부터 노래를 듣고 자랐고 '바리톤의 성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의 모친 박성련 여사는 우리나라 초연 오페라 '일트로바토레'의 주연 역을 연기한 촉망받는 소프라노였다. 덕분에 어린시절부터 집안에서 들려오는 클래식과 듣고 자랐고 전공을 결심하면서부터는 어머니로부터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부터 당연히 음악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그대신 수많은 음악을 듣고 자랐잖아요.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성악곡은 모두 섭렵한 상태였다는 거죠."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한 그는 바로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의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 권위인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한국인이 됐다. 이탈리아에서 지내던 15년동안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 선 그는 "성악가로서의 김동규는 그곳에서 다 활동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던 그는 15년전 돌연 한국행을 택했다. 가족과 헤어지며 혼자 된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그곳에 남아 노래하는게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대중적인 노래를 하는 성악가로 새롭게 태어났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대중을 위한 음악'이 진짜 대중음악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페라가 아닌 곡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중의 심리와 눈높이가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제가 아무리 음악을 전공하고 공부했어도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성악가가 됐고 1년에 100차례가 넘는 공연을 위해 전국 곳곳을 누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며 청취자들과도 만나고 있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게 가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음악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어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저의 목소리, 저만의 스타일로 바꿔부르는 것도 또 다른 작업이고 그렇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글·사진=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6월 취재차 들른 영국 국립 미술관(내셔널 갤러리)은 말 그대로 명작의 보고(寶庫)였다. 세계 4대 미술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시장에는 학창 시절 미술 교과서에서 접했던 명화들로 가득했다. 차분하게 작품들을 감상할 수 없는 짧은 일정이 너무 아쉬웠다. 가능한 많은 그림을 눈에 담기 위해서 수박 겉핥듯 전시장을 바빠 옮겨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대표작 '해바라기'(1888년 작)앞에선 한참 동안 머물렀다. 1888년 8월 프랑스 아를르에 거주할 당시 고흐가 그린 이 작품은 열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그림과 달리 '시들지 않은 꽃...'이라는 제목이 "세상은 몹시 험하지만 한번은 살아볼 만하다"던 그의 자기정신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비록 전시는 오래전 끝났지만 손상기 재조명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여수시가 손상기 기념사업회와 함께 '여수지역 미술관 건립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손상기 미술관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실 여수시는 인구 30만 명의 도시이지만 변변한 미술관 하나 없다. 여수보다 인구가 적은 목포나 함평, 보성, 무안, 화순, 강진 등이 미술관

미술관 불모지 '여수의 꿈'

은 노란색 배경에 열 네 송이의 해바라기가 화병에 담겨 있다. 이글거리는 듯한 노란색과 터질 듯 춤추는 듯한 해바라기씨가 인상적이다. 고흐는 평생 동안 작품 1점을 판매한 불우한 작가였지만 강렬한 색감의 '해바라기'를 통해 예술에 대한 열정을 투영했다. '해바라기'가 유독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다.

기자가 '해바라기'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춘 건 비단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 1월 GS칼텍스예술마루에서 봤던 여수출신 그 손상기(1949~1988)화백의 '시들지 않은 꽃-해바라기' 연작(1981년 작)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의 사후 25주기를 기념해 열린 '고통과 절망을 끌어안은 예술혼'전에 출품된 작품은 화병 속 해바라기가 허리가 꺾인 채 시들어가는 모습이다. 마치 세 살 때 앓은 척추만곡증으로 키가 140cm에 불과한 그의 자화상을 마주한 것처럼

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높여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자연사박물관, 근대역사관, 어린이 바다과학관, 남농기념관 등 6~7개의 박물관이 밀집한 '뮤지엄 마을'로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목포와 비교된다.

물론 지역의 정체성이나 콘텐츠가 빈약한 미술관 건립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여수는 시민들의 문화향유욕구가 높고 손상기 화백, 향일암, 오동도 등 차별화된 자연·문화자원이 풍부한 만큼 미술관이 들어서면 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술관은 문화로 도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특히 지역의 화두로 떠오른 여수수업소의 일부 시설을 미술관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여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비엔날레, 7일까지 대학생 '청춘데이' 이벤트

입장권 4000원 할인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정동채)이 오는 7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청춘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재단은 이벤트 기간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 광주비엔날레'를 4000원 할인해준다. 또 밀레 아트샵에서도 학생증과 입

장권을 제시하면 예코백, 수첩, 머그컵, 피규 등 다양한 아트 상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밀레 카페에서도 아메리카노 커피 '1+1'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올해 20주년을 맞은 2014광주비엔날레에는 38개국 103개팀의 작가들이 참여해 '터전을 불태우라'라는 주제가 지닌 역동성과 혁신성을 담은 작품 413점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608-422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9월20일 국립나주박물관을 찾은 김동규씨(오른쪽)가 소프라노 이수연과 'My melody of love'를 열창하고 있다.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 | | | | | |
|---|--|--|---|---|--|
| 고전방 동구 공동 34-4번지(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총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대표 이복례 ☎062)224-1541 | 아워호텔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핑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 무등국밥 동구 금남로 2가 (구)동구청뒷길 머리국밥, 순대국밥, 내장국밥 ☎062)228-7705 | 동그라미팔죽 남구 진월동 남광유치원부근 팔죽 동지족 호박죽 검은콩수 바지락칼국수 만두 ☎062)676-8977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
| 골든보석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예물귀금속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 |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뿔탕, 오리장어탕 ☎062)401-5253 | 골든전당포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 | 올레예술회관 동구 금남2가 (구)동구청뒷길 생고기비빔밥 낙지비빔밥 갈비탕 소머리국밥 ☎062)222-8653 | 장충동왕족발보쌈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족발 소, 중, 대 보쌈치 신속한배달카드결제가능 ☎1588-3300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다나베움 동구 남동 169-4 (총장로1가입구인속촌원)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 호선갤러리 동구예술의거리10번지 미술품전시및대관 대표 부영진 ☎010-5680-1188 | 행복한밥상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우산공원건너편골목해성유치원옆 백반, 아구탕, 아구찜, 단체예약순남형 대표 정지섭 ☎062)252-3033 |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9655-7765 | 거금조경 북구 두암동 미라비아아파트 사거리 으뜸주유소옆편 굴취, 전지, 식재, 벌초, 산일, 이장 예초정원자역사추 대표 소정택 ☎062)268-7709 |